

## 민속 명절과 사회주의 명절의 나라

주강현

경희대 강사, 민속학자, 문학박사

**19** 96년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다가왔다. 금년은 설날이 조금 늦게 끼어있어 완연한 봄 기운과 더불어 설날 맛이를 하게 됐다. 1월 1일과 민족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면서 북한의 명절 문화를 생각해볼게 된다. 분단이 깊어지다보니 명절 지내는 것마저 달라지게 되었다. 혈육과 헤어진 채로 오랜 세월 망향의 정을 그려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움이 사무치게될 것이다. 우리의 관습에 명절만 되면 떠났던 고향도 되돌아오는 게 인지상정인데, 분단의 세월은 야속하기만 하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명절, 그 어제와 오늘을 되살펴보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

북한 사회에서는 '명절'이란 말의 개념 자체가 남한과는 다소 다르다. 북한 사회에는 '전통적 명절'과 '사회주의적 명절'이 병존하고 있다. 명절의 개념이 '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서 매우 의의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과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지키는 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두

가지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일은 보다 실체에 접근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짧은 이 글은 북한 명절의 현주소를 통하여 명절의 변화 과정, 명절의 현주소를 점검해봄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같은 뿌리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명절의 변화 과정은 몇가지 계기적 흐름을 지닌다고 보겠다. 해방 이후 전쟁 전까지는 별다른 변화없이 북한 전역에서 전래 명절 차림 풍습이 지속되었다. 1946년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서 보여지듯 생활 양식 변화의 물결은 전래 명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전쟁 이후 사회·경제적 어려움 특히, 사회주의 협업화는 전래의 마을 단위 공동제축의 성격을 지닌 명절 행사들을 대폭 축소시켰다. 전래 풍습이 잔존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풍습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생활과 풍습은 어떤 사회 변화보다도 장기적·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북한 사회에서의 전통 명절 역시 여전히 이어져왔다. 다만, 사회주의 사회에 걸맞게 사회

주의 명절이 강조되고 전통 명절은 삼복된 형태로 이어져온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 기행문을 보면 자본주의에 매몰지 않은 순수한 예의 바름과 친절은 그 어느 곳보다 두드러지고, 가정 내 가족 관계에서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역시 남한 사회 못지 않다고 한다. 또 하나는 이같은 삼재 의식은 성묘를 조상에 대한 최대의 효로 생각하여 가능한 한 조상의 묘소를 사수 찾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우애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명절을 매개로 한 우애로운 생활 정서도 여전히 여전한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걸맞는 방향으로 그 성격과 명절 지내는 것이 변했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명절 행사와 많은 관련이 있는 제사 의식이 지금까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북한에서도 화장을 싫어하고 묘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조상의 부덤을 찾는 풍습도 여전히 있다. 다만, 차례를 지내는 방식이 과거처럼 많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근검하게 정성으로 지낸다거나 유교식의 한문투 축문이 사라졌

다는 등의 차이를 빼놓고는 명절 차원에서 조상을 모심도 남한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전통 명절은 매우 간소하게 지켜지고 있다. 조상의 묘를 찾아 별초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는 애국 열사의 부덤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명절에 치중하던 정책도 많이 바뀌어 1988년에는 추석을,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옷날을 휴식일로 지성하는 등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을 부활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우리의 모든 전통 명절을 완전히 일소하고 탄압하였다는 주장이나 가르침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명절날의 행사로는 역시 노는 일과 음식차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사람들의 노는 방식을 살펴본다.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딱딱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어디서나 놀기를 좋아한다....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는 북한 취재 기사가 가끔 나온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1인 1기의 교양 사업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춤도 잘 추며 ‘열심히 노는 것도 인민의 도리다’라는 슬로건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여 북한 사람들도 잘 논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노는 일이야말로 남북을 통틀어 한국인이 지닌 특유의 낙천성에 기인하는 탓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민속

놀이를 높게 친다. 민속 놀이에 담겨진 자주성과 계급성, 집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춘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에서 전래 민속 놀이의 건강한 정신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중이다. 명절날 율놀이를 즐긴다거나 그네뛰기를 즐기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집안에서는 율놀이나 주패놀이를 즐기며 화투는 일제 잔재라 하여 사라졌다.

음식 문화에서는 전래 민족 음식이 유난히 강조된다. 특히, 명절 음식은 고유의 맛과 다채로운 종류로 인민의 식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 식생활을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입장에서 높게 평가된다. 명절날에는 특별히 배급이 나온다. 술과 고기, 과일 그밖의 선물들이 나오는데 계획 경제 하에서 일상적으로는 일상적 물질이 공급되다가 이날만큼은 특별 배급이 실시된다. 추석날의 송편과 설날의 신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여전하다. 관북지방에서는 인절미, 귀밀떡, 귀밀송편, 기지떡 등이 유명하고, 해서지방에서는 송편, 증편, 꿀물경단, 무우설기떡 등이 유명하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의 특색있는 민족 음식이 선보이는 날이 명절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 음식을 이웃간에 나누어 먹는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도 여전하다. 북한에 쌀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떡문화가 사라졌

다는 식의 교육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전통 명절들이 절기의 변화에 따라서 형성되어왔다면 사회주의 명절은 각종 기념일 및 휴식일 형태로 다양하게 창조되어왔다. 사회주의 명절은 '4월혁명' 이라고도 부르는 김주석 생일같이 정확하게 명절날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기념일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 국가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곁들여지는 명절

'당과 인민과 수령'이 일체를 이루는 '주체시대'의 명절로는 '수령님의 생일(4월 15일)'을 으뜸으로 치고 있다. 북한 사회를 '영도'한 혁명적수령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행사가 펼쳐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으나, 김주석 사후에 4월 명절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외 '국제노동자절'인 5·1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9·9절,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된 '헌법절' 등 사회주의 건설에 매개된 명절을 들 수 있다.

### 다양한 계층, 직업에 따른 기념 명절

근로자, 근로 인테리, 학생, 군인 등 각각의

직능과 직업에 따른 명절로 기념일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일괄하여 기념 명절 정도로 고려하면 될 것이다. 기념 명절은 대략 30여 개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기계절(2.20), 농업근로자절(3.5), 국제부녀절(3.8), 어부절(3.22), 보건의절(4.5), 식수절(4.6), 철도절(5.11), 지질탐사절(5.15), 건설자절(5.21), 국제아동절(6.1), 지방산업절(6.7), 체신절(6.28), 공군절(8.20), 교육절(9.5), 전기절(9.24), 임업노동자절(10.8), 학생절(10.9), 금속노동자절(10.9), 방송절(10.14), 방직공업절(10.15), 출판절(11.1), 육·해군절(11.16), 화학공업절(12.6), 광부절, 체육절 등이 있다.

### 민족해방운동사와 국제연대성 기념일

이 부분 역시 기념일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 기념일 가운데에는 4월 명절(4.15)이나 5월명절(5.1절)처럼 국가적 명절로 된 것도 있으며, 김정일 생일(2.16)처럼 후계 분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기념일에서 국가적인 명절로 변환 것도 있다. 민족해방운동사는 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중심으로 한 혁명 전통의 강조가 두드러지고 주체사상의 전면적 유일체제화 분제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 동시에 해방 이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기념비

적인 날들도 정해졌다. 그밖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연대성 운동이나 혁명 운동을 기념하는 날, 통일 운동과 관련된 날 등이 기념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변화와 더불어 연대성기념일은 상당히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적 명절이 자리잡았고 남은 남대로 자본주의 사회에 부합되는 방식의 명절들이 자리잡았다. 각각의 처지가 다른 탓으로 전통적 명절이나 민속 놀이도 많은 변질을 거쳤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만은 있다고 본다. 한민족은 오래 명절날만이라도 헤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오묘한 자리를 만드는 미풍양속을 살려왔다. 큰 명절마다 귀성길이 인산인해로 장사진을 치는 것도, 조상에 대한 차례지내기와 벌초 역시 모두 정겨운 만남의 자리였다. 이제 조상 전래의 명절을 상호간에 온전한 만남으로 되새겨보고 남북간의 완전한 만남을 누구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상호간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간 명절들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헤어진 가족들이 명절에 만나듯 헤어진 민족이 통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단 50년이 되도록 민족 풍습 하나조차 서로 챙겨주지 못하는 '뿔난 민족'이 되고마는 비통한 현실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제는 변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